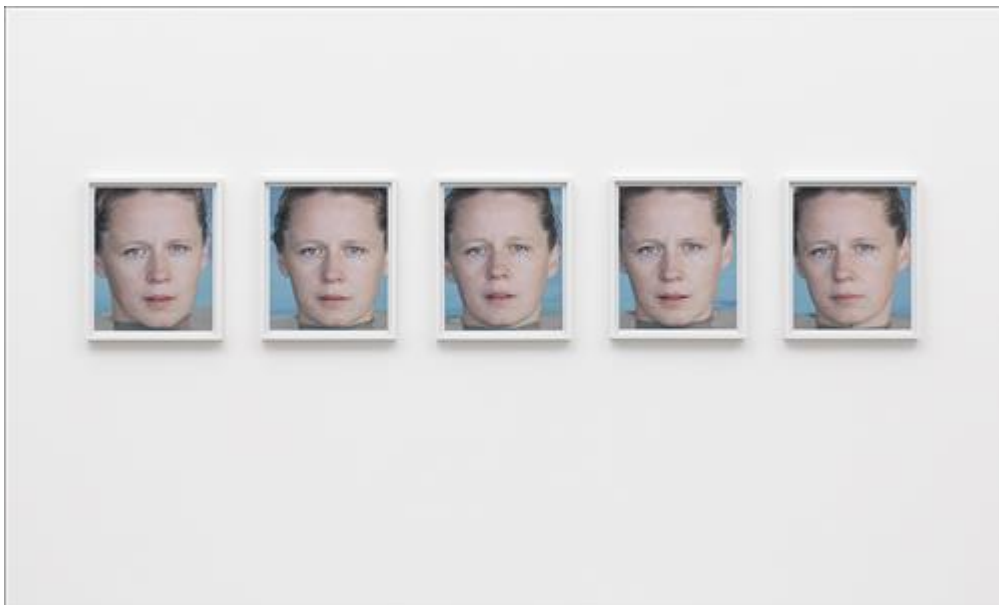


<"당신은 날씨입니다"...로니 혼 개인전>

장하나 기자

2014/05/20 14:18



Untitled (Weather) 2011 inkjet/pigment print on paper: 5 color prints, mounted on sintra 31.11 x 26.03 cm <<국제갤러리 제공>>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작가 로니 혼(59)은 30여년 전인 20대 시절 아이슬란드를 처음 여행한 뒤로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만 작업하고 있다.

당시 접한 아이슬란드의 빛과 자연, 날씨에서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아이슬란드라는 지역적 무대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 내용이 됐다." (유진상 계원예술대 교수)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로니 혼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2007년과 2010년에 이은 세 번째 전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 역시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사진 연작 '당신은 날씨입니다'(You are the Weather)는 아이슬란드의 온천과 수영장에 몸을 담근 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100장의 사진으로 이뤄졌다.

작가는 일정 시간을 두고 연속해 촬영한 뒤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연속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5~7점으로 구성된 한 시리즈는 언뜻 보면 전부 같은 사진 같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수에 잠긴, 때로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에서 미묘한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로니 혼은 작가이기도 한 사진 속 주인공의 얼굴을 30년간 촬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최근 3년간 작업한 사진들이다.

작가는 이 사진 연작을 전시장 벽면에 빙 둘러가며 설치해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이 거꾸로 사진 속 여성의 시선에 둘러싸이는 듯한 효과를 연출했다.

로니 혼은 "이 작품이 촬영되고 전시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관객은 시선에 의해 응시되는 관음 증적 상황에 놓인다"며 "당신은 당신을 주시하는 한 여성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작품을 눈높이보다 다소 높게 설치했던 이전 전시와 달리 이번에는 작품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해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연작과 함께 선보이는 연두색 계통의 유리 주조 조각은 대지의 느낌을 담았다. 1t 무게의 유리 덩어리지만 마치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물이 찰랑거리며 넘칠 것 같이 맑고 영롱한 느낌을 준다.

'개들을 겁먹게 하는 햇빛의 변화들', '하나의 색감으로 변질된 무지개', '유성우 속에서 잠들었던 것에 대한 슬픔의 감각', '바람을 거슬러 나아가는 빛' 등 작가가 붙인 제목도 인상적이다.

로니 혼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과 구겐하임컬렉션, 바젤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작가는 뉴욕 휘트니 미술관(2000년), 파리 퐁피두 센터(2003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2004년) 등에서 전시를 열었으며 2009년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 바 있다. 올해는 바르셀로나의 호안 미로 파운데이션과 마드리드의 라 까이사 포럼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다.

전시는 6월 22일까지. ☎ 02-735-8449.



Roni Horn No.3, New York, 2011 Photo Credit: Juergen Teller <<국제갤러리 제공>>

URL: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4/05/20/0901000000AKR20140520111300005.HTML>